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3.13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12(일) 오전 11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3. 10(금)	담당부서	자원개발전략과, 광물자원팀
담당과장	이승렬 과장(044-203-5140) 윤정원 팀장(044-203-5150)	담 당 자	조성욱 사무관(044-203-5144) 김두열 사무관(044-203-5153)

◈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회복 분위기 ◈

-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 급증(전년 동기대비 69%), 성공불융자가 특별융자로 전환된 이후 첫 번째로 지원 결정 -

□ 최근 **유가 회복 분위기**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시작한 **'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'(이하 '특별융자') 사업**을 통해 저유가 등으로 침체된 국내 **해외자원개발 업계가 활기**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.

○ 투자여건 조사과 기초탐사 등 투자결정 전에 실시하는 기초 조사 사업인 **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**의 경우 올해 **1분기 신청건수가 27건**으로 전년 같은 기간(16건)과 비교해 대폭 증가(69%)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**기업의 관심이 개선**됐다.

○ 관련 업계는 현 시점이 해외자원개발 **투자 적기**이며, **특별융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**을 병행한다면 민간 **기업이 투자를 더욱 확대**할 것으로 바라봤다.

□ 최근 실시한 융자심사에서도 **포스코 대우의 '미얀마 AD-7'** 탐사사업이 성공불융자를 **특별융자로 전환한 이후 첫 번째로 승인**(3.10)했으며

○ 이 사업 이외에도 올해 11월말까지 총 15개 탐사사업의 융자신청을 예상하고, 이 외에 다수의 개발·생산사업 융자 소요가 있어 올해도 **특별융자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**

○ 이번에 융자를 승인한 **'미얀마 AD-7'** 광구는 포스코 대우(사업 운영권사)와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. 이 광구는 이미 포스코 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해 탐사에 성공한 미얀마 A-1/A-3 광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앞으로 **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.**

□ 올해부터는 지난해 폐지된 성공불융자사업과 차별화해 최대 지원 비율을 80%에서 30%로 낮추고, 탐사 실패시에도 30%는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등 **기업의 책임을 강화**했으며

○ 탐사 개시 이후에는 융자 신청을 불허하고, 사업 관리기관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**사업 관리를 강화**했다.

<특별융자 주요 제도개선 사항>

구분		기존	개선
기업 책임성 강화	지원 비율	· 최대 80%	· 최대 30%
	감면 범위	· 100%	· 70%
민간중심 선별지원	지원 대상	· 공기업 위주	· 민간 기업
	선정 기준	· 신청 사업 전체 지원	· 탐사사업 우선 지원
융자 및 감면 심의 강화	신청 시기	-	· 탐사 개시 이후에는 융자 신청 불허
	잔액 집행	· 연도말 일괄 배정	· 연도말 예산 잔액에 대해 추가지원 금지
	과락	· 70점 미만	· 80점 미만
관리·감독 강화	관리 기관	· 석유공사, 광물공사	· 한국에너지공단('17.7.1부터)
	집행 점검	-	· 융심위에서 매반기 점검 실시

○ 산업부는 특별융자 사업이 **적기에 원활한 기업 지원**이 될 수 있도록 **분기별로 융자심의회**를 개최하고, 수시로 **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**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 석유공사, 광물공사 등 **자원 공기업도 기술자문,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보급 등 기업 지원을 강화**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이승렬 과장(☎ 044-203-5140), 조성욱 사무관(☎ 044-203-51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개요

□ (예산 현황) ’17년 1,000억원

□ (개념) 고위험,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융자 실시

○ 성공가능성이 낮은 탐사사업은 탐사 실패시 융자금 일부를 감면(30%는 상환)하나, 탐사 성공시에는 원리금 외에 이익금의 20%를 추가 징수

□ (융자 조건 및 특별부담금 징수기준)

○ (융자조건) 사업비의 30% 이내, 융자기간 15년 이내, 이율 1.75%(변동)

○ (특별부담금) 운영이익금×융자 지원율×20%, 징수기간 : 15년

□ (사업시행 주체) 산업통상자원부

* 융자 대행기관 : 한국석유공사, 한국광물자원공사(’17.7.1부터 한국에너지공단)

□ (사업추진절차)

